

교회 안 사람들,  
교회 밖 사람들

<sup>29</sup>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sup>30</sup>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sup>31</sup>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sup>32</sup>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sup>33</sup>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할 때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sup>34</sup>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sup>35</sup>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눅7:29-35)

영적인 식량은 주님이 사람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커뮤니케이션하게 하시는 모든 선이며, 영적 음료 역시 주님이 주셔서 그것으로 커뮤니케이션하게 하시는 모든 진리입니다. 이들 두 가지, 즉 선과 진리, 사랑과 신앙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존재가 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AE.329:2)

※ AE(*Apocalypse Explained*, 계시록 해설) 위 329번 글 2번 항에 대한 Ager 영역 및 Whitehead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Spiritual food is all the good that is communicated and given to man by the Lord, and spiritual drink is all the truth that is communicated and given to man by the Lord. These two, namely, good and truth, or love and faith, make man spiritual;*

이는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에 관한

‘교회 안 사람들, 교회 밖 사람들’

주석 중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thou didst redeem us to God in thy blood,)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말씀의 내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7장에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시험 중에 주님을 의심했고,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속뜻은 신앙인들이 각자의 믿음(신앙)에 따라 받아들인 말씀, 또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의 속뜻은 말씀이 지옥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지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면 바로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진리가 선과 결합하여 의지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는 대신 그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경우엔 말씀

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지식 상태로만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말씀이 지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며,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말씀이 진리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말씀을 대하는 신앙인들의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전 시간에 주님이 무리에게 던지신 세 가지 질문이 그것인데요, 먼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십니다. ‘갈대’의 속뜻은 말씀의 문자적 지식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행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쌓아두거나 해석하는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진리로 발전할 수 없고, 시험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부드러운 옷’의 속뜻은 내적 진리입니다. 내적 진리는 천국 천사

‘교회 안 사람들, 교회 밖 사람들’

들의 진리입니다. 이제 막 거듭나기 시작하는 사람, 내면이 광야와 같이 황폐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물으시는 것은 자신의 그릇 이상의 진리를 욕심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각자의 영적 역량에 따라 그에게 맞는 진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받은 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주님께서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속뜻은 교회의 교리입니다. 주님이 광야와 같은 내면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는 바로 교회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자적 교리가 아니라 말씀의 속뜻으로부터 나오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리는 지적 유희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천사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천국의 삶을 가르치는 교

리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그런 교리를 통해 우리가 매일 같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무리를 가르치실 때, 백성과 세리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문 29,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up>29</sup>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sup>30</sup>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롭다 여겼지만, 바리새인들은 저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sup>10</sup>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sup>11</sup>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교회 안 사람들, 교회 밖 사람들’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sup>12</sup>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sup>13</sup>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sup>14</sup>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눅18:10-14)

이 말씀에서 ‘세리’의 속뜻은 진리를 사랑하는 이방인들입니다. 반면, ‘바리새인’의 속뜻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교회 안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주님이 의롭게 여기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 밖 선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새로운 교회, New Church 를 여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방인들을 뜻하

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회 안 사람들입니다. 주님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안 사람들은 스스로 진리를 많이 안다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교회 안 사람들이 그렇게 요한을 거부할 때 정작 교회 밖 이방인들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백성과 세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인정했던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말씀을 통해 악과 거짓을 씻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을 뜻하고, ‘세례’는 악과 거짓을 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시록 해설’ 724번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그 자체로 악과 거짓이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표상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천국에서는 그들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여긴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 천국과 교회의 사람들이 결합하며, 그때

‘교회 안 사람들, 교회 밖 사람들’

천국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 안에 계신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진심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며, 그들 안에 계시겠다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들처럼 착하고 겸손했더라면 저들이 누렸던 귀하고 황송한 주님의 선물을 저들도 받아 누릴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31절과 3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sup>31</sup>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sup>32</sup>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서 ‘이 세대’란 교회 안 사람들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는데’는 교회 안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거나 전하는 모습입니다.

‘장터’의 속뜻이 진리를 사고파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피리를 부는 것’의 속뜻은 그들이 거짓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춤추지 않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과 그것에서 비롯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기쁨은 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정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진리를 깨우치고 행할 때 영적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애정과 기쁨이 곧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진리를 왜곡, 그 결과 영적 기쁨이 없는 교회 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또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곡하거나 우는 것’의 속뜻은 선과 진리가 없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진리와 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가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

‘교회 안 사람들, 교회 밖 사람들’

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교회가 거짓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33절에는 교회 안 사람들이 진리를 모욕하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33세레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여기서 ‘세레 요한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말씀, 또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가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행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떡’은 선을 뜻하고, ‘포도주’는 진리를 뜻하며, ‘먹고 마시는 것’은 진리를 행함으로 진리와 선을 자신의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의해 새로운 진리가 선포될 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도 진리를 따라 살지를 못합니다. 그 상태가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

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진리를 사이비 진리라며 조롱합니다. 그것이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새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찌면 당연한 말입니다. 진리를 처음 받아들일 때는 그 속에 아직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 냉정한 진리, 또는 겉과 속이 다른 진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거듭남에 따라서 그의 진리 안에 온기가 생깁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레 요한이 온 것’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인 상태라면, ‘인자가 온 것’은 그 말씀 가운데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지식 속으로 선이 있는 진리가 흘러들어오는 것입

‘교회 안 사람들, 교회 밖 사람들’

니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선을 동반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동반한 진리, 즉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진리라야 신앙인들의 삶을 바꾸고 생명을 바꿉니다. 생명이 바뀐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인 선과 진리가 신앙인의 의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즉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오시는 것’은 진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상태이며, 그렇게 해서 인격이 바뀌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때에도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의 비난을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표현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는 것’은 이를테면 새 교회 사람들은 선과 진리밖에 모른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선과 진리, 선과 진리만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새 교회의 진리가 이방인의 진리, 즉 이단적 진리라

는 뜻입니다. 거듭남이란 결국 선과 진리이신 주님과 결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모두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선과 진리 사랑하는 것을 선과 진리에 집착한다 합니다. 또 교회 밖 사람이라도 선하고 진실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하면 이단적 진리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주님, 즉 진리 자체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교회가 타락할 때 주님은 언제나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교회는 말씀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이 죽었고, 주님 또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통해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진

눅7:29-35

‘교회 안 사람들, 교회 밖 사람들’

리이신 주님을 지독하게 미워했고, 결국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진리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의 삶을 보면 압니다. 삶 가운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의 진리는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믿음(신앙, *faith*)과 인애(*charity*, 이웃 사랑)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믿음, 즉 신앙과, 인애, 즉 체어리티는 그의 사랑, 즉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체어리티는 신앙인들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체어리티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앙과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진리를 박해했던 것처럼, 신앙인들도 신앙과 체어리티를 잃게 되면 주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진리와 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 매 순간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서울 새 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렘31:4)

아멘

원본

2018-09-02(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2-12(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